

# 1년새 리튬가격 반토막... 韓 배터리업계, 수익성 확보 '비상'

中 업체 등 재고 ↑... 수요 주춤  
리튬 원가-양극재 가격 시차 존재  
환율 하락 겹치며 실적 영향 전망



전기차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샘플과 원통형 배터리 사진. (왼쪽부터)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리튬은 가장 가볍고 반응성이 강한 금속이다. /포스코케미칼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소재 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톤(T) 당 19만 5500위안(약 3548만원)으로 6월에 기록한 최고가 30만5000위안(약 5455만원)과 1900만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4월 말 15만2500위안(약 2768만원)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지만 지난해 동기 47만6500위안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 리튬 가격의 급락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튬은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중 하나다. 특히 배터리에 필수인 양극

재는 2차전지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리튬은 양극재 생산 원가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리튬 가격은 배터리 제품의 수익성과 직결돼 전기차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튬이 초과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중국 CATL, BYD 등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가 늘면서 수요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리튬을 사용하는 양극재 업체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에는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비싼 가격에 원료를 매입한 양극재 업체들로서는 판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리튬 원가

와 양극재 가격 반영 시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겹쳐 단기적인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양극재 판가부진으로 상반기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소재사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바 있다.

또한 리튬 가격의 급등과 급락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과도 연관이 깊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들은 메탈 가격에 연동된 판가를 토대로 납품 계약을 맺는다. 리튬 매입시기와 판매 시점의 격차가 일어나면 비싸게 산 리튬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리튬 가격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더 올라가고 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배터리 리튬 메탈 리포트’를 통해 2028년에 탄산리튬 가격이 t당 13만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리튬 생산량이 느는 속도에 비해 리튬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SNE리서치는 “리튬 채굴 국가가 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을 만족하는 리튬 공급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망 다변화에 기대를 건 것이다. 실제로 기존 남미, 호주 등 소수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리튬 채굴 국가가 북미, 유럽, 아프리카로 서서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판가 연동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상승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수요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삼성전자, 주가 7만원선 복귀 전고점 9만원대 돌파 전망도

엔비디아 등 HBM3 승인 주효  
외국인, 기관 대규모 순매수

‘7만 전자’로 복귀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고점인 9만1000원도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엔비디아 효과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까지 호재로 작용했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28% 오른 7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2900원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한달여 만이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 고객사 확보에 대한 우려로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향후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직전 고점인 9만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효과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로부터 HBM3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4분기부터는 HBM3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HBM 5세대 제품인 HBM3P에 대해서도 4분기에는 엔비디아, AMD에 샘플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축소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로도 HBM3를 신규 공급할 것으로 보여 내년 삼성전자의 HBM3 고객은 최대 10개사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HBM 설계,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HBM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HBM의 경우 향후 2년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동시에 매집에 나서며 등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날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특히 외국인은 6% 이상 급등했던 지난 1일과 이날 순매수한 물량만 각각 794만주, 796만주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 이틀간 순매수한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잘나가는 #우리들의 핫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3. 9. 11 (월) ~ 9. 13 (수)  
• 세종캠퍼스 : 2023. 9. 11 (월) ~ 9. 15 (금)  
• 접수처 : oku.korea.ac.kr